

'광주형일자리' 초임 연봉 3000만원·임원 1~2억원 전망

광주글로벌모터스 임금정책 용역 800여명 생산직 하반기 채용 임금통한 노사상생 여부 '주목' 반값 연봉 우수인재 확보 관건

광주형일자리 첫 적용 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조만간 임직원 임금 체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광주형일자리 임금을 동종 대기업 근로자의 '반값'으로 하는 대신 복지수준을 높여 일 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최종 임금수준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현재 임금 체계 확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다수를 차지할 20대 생산직 사원 초임 연봉은 3000만원(월 250만원) 수준, 이사진을 비롯한 임원 연봉은 1~2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금에서 '노사 상생'의 외형을 갖춰 지역노동계와 시민사회 우려를 떨쳐낼 수 있을지, 대기업 절반 수준의 '적정 임금' 혹은 대기업 '반값 연봉'으로 신설 회사 경쟁력을 끌어올릴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15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따르면 회사 측은 현재 이사진을 비롯한 임원, 관리직 사원, 생산직 사원 등 임직원 임금 책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3명과 본부장급 임원 3명이 근무 중이며, 오는 17일까지 팀장·과장급 경력직인 채용을 위한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다. ▲사업기획 ▲경영지원 ▲생산 ▲품질관리 등 네 개 분야에서 부장·차장인 팀장급 11명과 과장급 11명, 생산관리자문위원 1명 등 23명을 뽑고 있다. 800여명 규모로 직원 다수를 차지할 생산직 사원 채용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회사 측은 20대 신입 생산직 사원부터

50대 경력 생산직 사원까지 연령대별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 20대 생산직 초임의 월 급여는 250만원(연봉 3000만원 수준)이며, 30대 이상 경력자 급여는 경력에 따라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 회사 측은 20대 초임의 경우 월 250만원 급여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 등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월 3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40~50대 경력 생산직 사원의 연봉은 5000~6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사 측은 연령·경력에 따라 피라미드 형태로 직원을 뽑을 계획이고 다수는 신입 채용이어서 애초 광주사·현대자동차 간 합의 한 연봉 구성 원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1~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해 초 자동차공장 투자협약 당시 '신설 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3500만원(주 44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봉 구성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신설법인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기업 반값 연봉' 정책은 향후 반대로 회사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 및 투자자 측 설명대로 임금을 아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반대로 적은 연봉은 우수인재 확보의 장애물이자 노사관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되레 회사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소지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임원진 급여, 노동자 평균치 2배 이내 책정'을 주장해온 지역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박광태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의 연봉 수준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글로벌모터스 고위 관계자는 "임원 연봉은 용역 결과가 나오고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될 것이나 대기업보다 현저하게 적게 1, 2억원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안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보장하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주택거래 허가제까지...부동산 슈퍼대책 나오나

청와대 연일 부동산 시장 공세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강기정 정부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부수석은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때때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참여정부 때 검토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강 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중화한 표현을 쓴 것은 이 제도의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가지는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15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와 천정배·장병완·박지원 의원이 총선 예비후보자 등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텃밭 광주 찾은 대안신당 "보수통합에 맞설 개혁통합 이뤄내겠다" 목표서 현장 최고위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와 천정배·박지원 의원은 15일 5·18묘지를 참배하고 목표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등 '호남 텃밭' 사수에 나섰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15일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신당은 중도 개혁적인 제3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세워나가겠다. 광주와 호남에서 일당 독식을 막아내고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

동영 민주당화당 대표, 무소속의 호남 의원에 호소한다"며 "지금 광주와 호남의 유권자들은 거대 양당의 패싸움 정치에도 신물을 내고 있지만 동시에 지리멸렬한 제3세력의 분열된 모습도 질타하고 있다.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보수 통합에 맞서 개혁 통합을 완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설 연휴 전에 제3세력 통합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 국민에게 선불하자"며 "이미 유성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어떤 형식이든 설 연휴 이전 라운드

테이블을 갖자"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이어 "제3세력의 통합은 국회에서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 정치에서는 정치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대안신당은 김대중 정신의 온전한 계승자로서, 5·18 광주 정신의 충실한 실천 세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신당을 '호남팔이'로 비하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얼마 전까지 4+1 협의체에 함께 하며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유지

원 3법 개혁을 완수한 대안신당에 예의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협력을 구하고 지금 와서 비난하는 것은 정치 도의도 아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과 의원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정치 지향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리더십과 정치 능력에 많은 시민이 고무되고 있고, 특히 호남 유권자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하지만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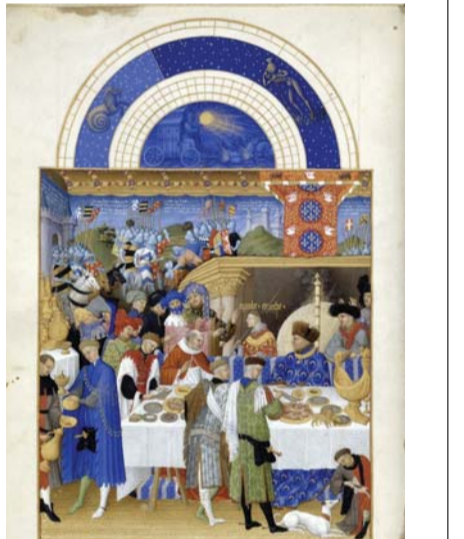
김은영의 '그림 생각'

(297)달력

우리가 흔히 '명화'라고 부르는 그림들을 최초로 접했던 것은 어린 시절 우연히 우리 집에 걸리게 된 제약회사 달력 덕분이었던 것 같다. 아마 르누아르 작품이었을 것이다. 중산층 가정으로 보이는 우아하고 고급스런 분위기에 예쁜 금발의 숙녀가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담은 명화 달력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윽고 한해를 보내고 나면 명화달력은 새 학년 새 교과서 책가위로 재활용되기도 했는데 책가위가 닳을까봐 교과서

감동 함께 전달된 미술관 그림 달력

를 아꼈을 정도로 순진한 시절이었다. 15세기 유럽 최고의 세밀 화가였던 랭부르헨제(폴, 에르망, 장)의 '베리공작의 호화로운 기도서'는 최초의 명화달력으로 알려진 그림이다. 프랑스 국왕 샤를 5세의 동생이었던 베리공작이 랭부르헨제에게 주문하여 그린 이 기도서는 귀족들의 가정용 기도서로 달력이 포함됐다. 공작의 생활과 영지 농민들의 풍속이 12달 계절에 맞게 화려한 채색으로 묘사되어 있다. '베리공작의 호화로운 기도서' 중 1월 달력인 이 그림은 그림 오른쪽에 털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베리공작이 새해 신년 연회를 열고 있는 모습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실내에서 잘 차려입은 손님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분위기를 섬세한 묘



랭부르헨제 작 '베리공작...' 사와 채색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신년의 설렘이 느껴진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 박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